

# 《우리의것이 제일이다!》

— 제 2 차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

얼마전 공화국의 평양야동 백화점에서 제2차 평양시인민 소비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시안의 170여개의 인민 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만든 1100여종에 34만 4000여점의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늘어난 품종수와 제품의 질도 그렇지만 출품된 제품들이 생산단위들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으로 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는 평양구두공장, 보통강

신발공장, 전진신발공장, 서성송도구두제작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신발제품들도 있었다.

전기밥가마와 증기다리미를 출품한 평양자동차기공장의 전시대도 가정주부들의 발길을 그칠줄 몰랐다. 《이공장의 전기밥가마를 써왔는데 수입산제품보다 밥짓는 시간도 짧고 밥맛도 좋았습니다. 증기다리미도 사용이 편리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만든것이 제일입니다.》 증구역 서창동에서 산다는

리영옥녀성의 말이였다. 여러가지 화장품원료들을 국산화하고 새 제품개발을 다그치고있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만든 화장품들과 새로운 균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만든 만경봉건강제품생산소의 천연 피부보호제품들도 녀성들의 생활에 보다 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해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고있었다.

전시회에는 군중의 찬발성을 발동하여 만든 다양한 소비품들도 출품되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평양시 선교가내생산협동조

합에서는 가내반원들의 창발성을 발동하여 만든 71종에 400여점의 각종 소비품들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들은 각이하고 출품단위들도 서로 달랐지만 전시회장을 돌아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자기 힘이 제일이다.》 《우리가 만든것이 제일 좋다.》...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준 이번 전시회는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비품생산을 보다 늘여나가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유구한 역사를 가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계절향비가 세워졌다. 우리는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과 함께 계절향비가 있는 관광정자에 이르렀다.

계절향비는 입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한복속 바친 계절향의 애국심을 전하기 위하여 1835년 6월에 세운것이다.

화강석돌을 네모나게 다듬어 세우고 글을 새겨넣은 계절향비의 높이는 1m, 너비 40cm, 두께 12cm이며 윗부분은 약간 활동모양이었다.



##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 계월향비

비석에 새긴 옛글을 바라보며 림금석실장이 이야기하였다.

《원래 이 비는 계절향의 애국심을 찬양하여 울밀대 남쪽에 사당을 짓고 거기에 세웠던것인데 그후 관광정으로 옮겨왔습니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진주 측

석루아래서 적장의 목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애국녀성 문개와 계절향을 대비하면서 왜적을 죽인 공로는 누너이 같지만 기이한 계획은 계절향이 뛰어났다고 적여져있었다.

입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을 때 미처 피난가지 못했던 계절향은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평양성을 탈환하는 싸움에 한몸바칠것을 결심하였다.

계월향은 왜놈들의 시종을 드는척 하면서 적정을 탐지하여 아군부대에 통지해주었다. 계절향은 아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평안도 방어사인 김용서를 은밀히 성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적장수놈을 죽이

게 하였다. 계절향은 늘들 유인하다가 가루개고개에서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 그후 아군은 혼란에 빠진 왜놈들에 대한 총공격을 벌려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평양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계절향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가 살던 곳을 (월향동)으로, 그가 자결한 고개를 (가루개고개)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비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옛 선조들이 쓴 글자들이 안겨왔다. 계절향비는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위해 한복속바친 애국적소행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고. 장속영

## 인민들의 돼지귀종다리보쌈

돼지귀종다리보쌈은 돼지귀와 종다리로 보쌈을 만든 다음 여러가지 조미료로 맛을 들인 요리이다. 돼지고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함께 비린, 팜질 등 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뇨리는 허약, 피로, 빈혈, 허리아픔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질하여 삶는다. 돼지종다리는 삶아서 일정한 크기로 썬다. 돼지귀와 종다리에 다진 마늘과 생강,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를 두어 맛을 들인다. 이것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향미나리, 도마도, 레몬으로 장식하여 낸다. 본사기자



## 속담과 뜻

- ◆ 녀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녀자들이 약해보여도 여럿이 뭉치면 그 어떤 일도 해낸다는것을 이르는 말.
- ◆ 어머니의 사랑은 늙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는 늙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큼 세월이 가고 한생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 어머니생각은 자식한테 가있고 자식의 생각은 틀에 가있다.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고이 키우지만 자식은 다른 곳에 정심을 판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사화 백의종군 원 말이나 (1)

그림 채대성

입진조국전쟁이 터지기 아직 여러해전인 1584년 1월 눈보라가 모질게 부는 어느날이었다. 세찬 눈보라를 헤치면서 함경도 건원보(오늘의 경원군)의 군영을 찾아가는 웬 사람이 있었다. 오래동안 고생을 겪으며 먼길을 걸어온 듯 껌이는 옷은 누더기나 해지고 신은 찢어진 신발이 되었다. 배수건으로 칭칭 둘러감았건만 코와 귀가 어떻게 얼어든 그 사람의 모양은 이루 말할수 없이 초췌하였다.

《예, 리권관님이 여기 계신대기에...》 《리권관이라니? 어느 권관말인가?》 권관이란 종9품의 제일 아래급의 무관벼슬이었다. 당시 각 만호, 참사진들에 권관을 몇사람씩 두고있었다. 《충청도서 왔다는걸 보니 리순신권관을 찾게 분명하오. 그 어른의 고향이 충청도라 하지 않았나?》 《그렇지하네.》 《어보시오, 그런데 그 권은 뉘시우?》

군사들은 다시 맥없이 누워있는 낯선 사람에게 물었다. 《나는 리순신권관의 아산본집 하인인데 아버님의 부고를 가지고 왔소.》 《아니, 부고라니?》 군사들이 모두 필적 놀라자 아산서는 하인이라는 사람도 일어나 앉았다. 《권관님의 부친께서 지난 동지달 보름날에 돌아가셨소.》 《아니, 이런 변이 있다. 어서 리권관 말야라겠네.》 《젊은 권관이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여기서 지금 리권관으로 불

해방전 함흥시의 어느 한 빈민촌에서 태어난 유원준은 인력거도 끌고 우유배달도 하면서 고달픈 나날을 보냈다. 험벗고 굶주리며 살아온 그의 가슴속에 새겨쳐놓은 남다른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기있는 영화배우가 되는것이였다.

나라가 해방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원을 이룰수 있었다.

어느 한 극장에서 연극배우생활을 시작한 그는 해방 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1949년)에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해방전 일제와 착취계급의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주인공 판필의 형상은 유원준의 과거와 너무도 비슷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가 맡은 주인공역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그후 예술영화 《내 고향》이 완성되어 상영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게 영화배우로 방향전환을 한 그는 그후에도 《최학신의 일가》, 《춘향전》, 《열네번째 겨울》, 《평범한 사람》, 《위대한 품》을 비



###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 조선영화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인민배우 유원준

못한 수많은 예술영화들에 출연하여 관록있는 배우로서의 자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유원준은 독특한 목소리와 행동거지 등 개성적인 특성을 늘 보존하면서 그것을 각이한 인물성격에 맞게 굴절시켜 역형상을 새롭고 인상 깊게 하곤 하였다.

그의 연기형상은 다부작에 출연한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주인공 강태관역을 수행할 때 절정에 이르렀다. 영화에서 그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씨름판에 뛰어드는 패기있고 생동한 역형상은 매우 인상깊으면서도



실감있는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다. 판필이로부터 강태관으로, 이는 단순한 영화화면속의 인생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살아온 유

원준의 값높은 한생 그대로였다.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은 그는 로력영웅, 인민배우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 천연기념물 해질보무지개바위



해질보무지개바위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중평마을 바닷가에 있는 기암이다. 하늘높이 걸린듯 한곳은 산비탈면에, 다른 한쪽은 바다에 박힌 그 모양이 마치 무지개처럼 생겼다고 하여 무지개바위로 불리운다.

바위위쪽면은 밑에서부터 4m까지 화산체이다. 무지개바위는 사암, 려암 우에 현무암이 덮인 후 해식작용을 받으면서 솟아올라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에 돌아오는 여리가리 약초들을 캐어 진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우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요하게 생긴 이 바위는 오래전부터 해칠보일대의 강신문, 숲설, 달문과 함께 이름난 명소로 알려졌다. 밤달같이 생긴 바위구멍에 파도가 들이닥치 물보라를 날릴 때 무지개바위는 구름우에 걸린것같다.

서쪽 낮은 언덕에는 소나무, 도토리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어 이 바위 주변에 있는 누른색의 화성암들과 잘 어울려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다.

이 바위는 해식동굴로서 그의 형성과정과 지각의 용기운동에 대한 연구 그리고 풍치미관상의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허성철

3월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이다. 3월의 절기는 경칩과 춘분이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며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셀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3월의 절기 우리 선조들은 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며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셀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3월의 절기 우리 선조들은 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며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셀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3월의 절기 우리 선조들은 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며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셀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3월의 절기 우리 선조들은 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며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셀 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은 농작물들과 봉신화를 비롯하여 꽃모, 담배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 파르파르 돌아오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었다. 대표적인 나물로 병이와 달래를 들수 있다. 병이는 잘게 썰어 죽을 끓여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기력도 왕성해진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달래를 많이 이용하였다. 달래는 식용뿐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이였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에 돌아오는 여리가리 약초들을 캐어 진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우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칩은 3월 5일이 고 춘분은 3월 21일이다. 본사기자

리 고향이 있는 남쪽을 향해 세번 절을 하고 큰소리로 통곡을 하였다. 그리고는 함경감사와 부병사에게 친상을 당한 사실을 보고한 다음 곧 아산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동료들과 선배들은 길이 험하고 날씨도 차니 이왕 늦어진바에는 천천히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좋겠다고 하였다. 특히 함경감

으로 있으면서 겪은 일들도 그 산발들과 함께 언뜻언뜻 지나갔다.

두만강을 자주 건너오는 오랑개 울지내무리들때문에 조정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을 때 리순신은 이곳 건원보에 권관으로 부임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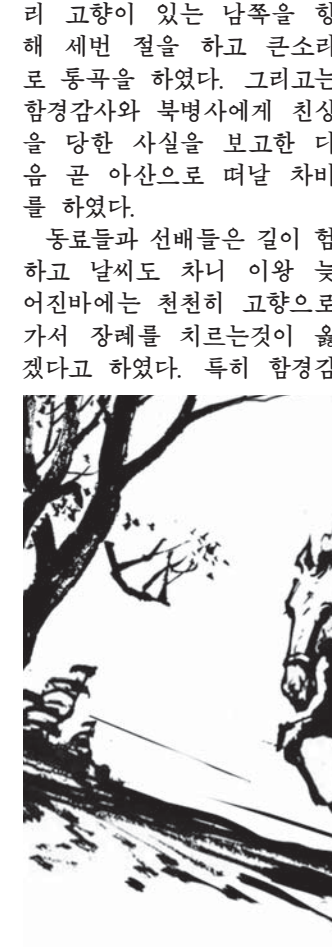
그는 얼마간 지나자 오랑개들의 습성을 파악하고 묘한 계획으로 적들을 유인하여 깊숙이 끌어들이는 다음 미리 숨겨두었던 북방을 일으켜서 울지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즉시 성문밖에서 그놈을 처단하였다.

그때도 리순신은 아산서 온 않는 하인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곧 말에 올라 체책을 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험하고 세찬 북방의 산과 들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리순신의 마음을 더운 미리 숨겨두었던 북방을 일으켜서 울지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즉시 성문밖에서 그놈을 처단하였다.

그때도 리순신은 아산서 온 않는 하인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곧 말에 올라 체책을 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험하고 세찬 북방의 산과 들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리순신의 마음을 더운 미리 숨겨두었던 북방을 일으켜서 울지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즉시 성문밖에서 그놈을 처단하였다.

그때말에 가서야 그는 재직 일수가 차서 겨우 훈련원 참군벼슬로 정기승진이 되었으나 아직은 건원보에 그냥 남아있던중이었다. ... 리순신은 달리는 말을 잠깐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산과 들을 이윽히 바라보고 나서 체책을 쳐들었다. 그는 낮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고였다. 탐나 말의 배에는 코드름이 생기고 그의 눈섭에는 성애가 불리었다. 그러나 계속 체책을 휘둘렀다.

아산 고향집에 들어서자 리순신은 상복을 입고 슬프게 목을 하면서 뒤트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었으며 그런 뒤에는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여 아침저녁으로 극진히 문안을 하였다. 그는 마흔두살이 되는 병술년(1586)에 3년상을 마쳤다.



사 정연신은 리순신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상복을 입는례를 마치고 날씨가 따뜻하면 천천히 떠나라고 여러번 사람을 띄워 권했다. 그때도 리순신은 아산서 온 않는 하인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곧 말에 올라 체책을 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험하고 세찬 북방의 산과 들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리순신의 마음을 더운 미리 숨겨두었던 북방을 일으켜서 울지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즉시 성문밖에서 그놈을 처단하였다.